



9면

미생물군 활용 축산 냄새 저감 효과

# 전주매일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음 11월 20일) 제316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내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사 의결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전북도, 102억 삭감 9조8516억 · 도교육청, 150억 삭감 4조6637억원

2022년도 정리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오늘 본회의 거쳐 최종 확정

전북도의회 예결특위가 전라북도과 전북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의결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형석)는 지난 9일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9조8,61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과 전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6,78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로는, 전북도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안 총 9조8,618억원 중 전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등 총 33건, 102억원을 삭감했으며, 전라북도 교육청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6,787억원 중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 총 48건 150억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도 정리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으로는 도청사 잔디광장 휴식공간조성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세계 스카우트잰버리 특산품판매장운영 등이 삭감됐다.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농어민 지원대책과 관련해 쌀값 하락과 농자재가격 폭등으로 농어민의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직접 피부에 와닿는 과감한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에 제기된 불친절 민원과 관련, 이미지 쇠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 등을 심사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도교육청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으로는 교직원 및 공무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DVD),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LED전광판 설치사업 등이 조정됐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의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1조 7,3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전북교육청의 유아 정책에 대해 도내 전체 유아의 무상보육·교육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을 심사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이행서 위원장은 "고급리, 고품가 시

대 속 경제민생 제일주의라는 중점 목표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 고루 돼 있는지, 세입

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며, "심사기간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경수 기자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그린수소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 김관영 도지사과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맞손'

전북도,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수소 산업 육성 협약 체결

전북도는 12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관영 도지사과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수소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국내 최고 에너지 전문 연구개발(R&D) 국책기관과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사업으

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그린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전북도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국가 수소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지원 협력, 지역의 수소 산업 기반체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청정·친환경 에너지 지원을 활용한 수소 신산업 육성 협력, 그린수소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 산업 분야의 R&D 수요 발굴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그린수소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기술개발 협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의 청정수소 생태계 확장 정책에 맞춰 전북도가 그린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산업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그린수소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시작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전북도가 청정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그린수소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전북 '으뜸촌' 전국 최다

농촌관광마을 중앙평가서

정읍 2곳 · 완주 2곳

무주 1곳 등 5곳 선정돼

전북형 농촌관광 육성 결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2022년 농촌 체험휴양마을 등급평가 결과 전국에서 제일 많은 으뜸촌 5개소를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으뜸촌이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 음식, 체험프로그램 3개 분야를 평가하여 3개 모두 1등급인 마을에만 주어지는 영예이다.

전국 1,170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으뜸촌의 영예는 44개소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평가를 통과해야만 선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으뜸촌으로 선정된 전북 마을은 총 5개로 정읍시 2개 마을(꽃두레행복마을, 태산선비마을), 완주군 2개 마을(경천애인마을, 안덕마을), 무주 1개 마을(무풍송지마을)이다.

으뜸촌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로 전북에는 기존에 으뜸촌으로 지정돼 유효기간이 남은 익산시 산들강동포마을, 정읍시 황토현낙두랑시루랑마을, 남원시 달오름마을까지 포함하면 전체 8개의 으뜸촌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 같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그동안 추진됐던 전북형 농촌관광 육성정책들의 효과가 발휘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특색있는 테마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한 (사)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북협의회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이 한몫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농촌의 정겨움을 선사하고 농촌주민들에게는 농촌공동체 유지와 농업의 소득을 벌어들여 주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며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가 아닌 농촌마을을 여행지로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효정중-완산서초 통합 무산

찬반 투표 실시 결과 효정중서 찬성을 18.3%에 그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서 추진하려던 전주 효정중-완산서초의 통합이 무산됐다.

이번 통합 무산으로 도교육청은 교부금 374억 중 147억원을 보통교부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는 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원도심 중학교를 통합하지 못하면 교부금을 반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두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완산서초등학교의 찬성률은 73.5%로 비교적 높았지만, 효정중학교의 찬성률이 18.3%에 그쳤다. 이에 두 학교의 통합이 어렵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각각 중학교 1

곳을 신설하기로 하는 학교 설립계획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조건부 승인으로, 당시 교육부는 에코시티 내 화정중학교과 만성지구 내 만성중학교 설립에 따른 전주시에 구도심 중학교 2곳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당초 중부위 심사단계에서 도교육청은 도내 자연 폐교 대상 학교 5곳을 선정해 보고했지만, 중부위 심사위원들은 이 방안을 거부하고 전주지역 내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주시내 2곳의 중학교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각각 1곳씩 이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정은성 기자



### 무주 겨울을 열다

짜릿짜릿한 겨울  
포근포근한 겨울  
낭만가득한 겨울

무주에 오면 다 있습니다  
무주를 열면 다 있습니다